

듣는

2024년 7월호

마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순복음성복교회**  
YOIDO FULL GOSPEL SEONGBUK CHURCH

## “듣는 마음” 책자 소개

### ‘듣는 마음’이란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듣는 마음”은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내 안에 임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선포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는 영성 훈련입니다.

큐티(QT, Quiet Time)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듣는 마음”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듣는 마음”을 통해 성경을 읽어가고, 말씀에 집중된 기도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길 소망합니다.

### ‘듣는 마음’ 활용법

예수님은 이천년 전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듯, 오늘날에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재가 되도록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1.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마태복음 6:9-10)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내게 맞추려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내게 적용하려고 하기보다,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 2.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편 1:1-2)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묵상은 조용하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듯(사31:4),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소리내어 고백하며, 선언하고 선포하듯이 읽으십시오.

### 3. 말씀으로 기도하기

(베드로전서 2:1-2) 1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 갓난 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기도는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읽기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갓난 아기와 같이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십시오. 나아가 말씀읽기를 통해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말씀읽기와 기도는 결코 나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의 실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듣는 마음”을 통해 말씀을 읽어가며 말씀으로 기도하여,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 보십시오.

### 블레싱 타임 : 듣는 마음 ·4

오늘의 성경읽기

### 블레싱 타임 : 주간 메시지 나눔 ·128

7월 5일 공과 - 당신을 통하여

7월 12일 공과 - 실로에서 행한 미정복지 분배

7월 19일 공과 - 복음을 전할 때

7월 26일 공과 - 하나님의 자녀

### 선교사 열전 ·136

아펜젤러 선교사 (1)

**여호수아 4:1-16**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 요단을 건너 약속하신 땅에 이른 이스라엘

**1**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3**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열둘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밤 너희가 유숙할 그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4**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5**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6**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나 하거든 **7**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야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8**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둘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기념하다

**9**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둘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10** 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넌으며 **11**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야훼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넌으며 **12**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13** 무장한 사만 명 가량이 야훼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14** 그 날에 야훼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15**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 증거궤를 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시편 129편

**4** 야훼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5**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 이사야 64장

**1**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2** 불이 쏘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 마태복음 12장

**24**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25**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 읽기 가이드

여호수아 4:1-16

###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 요단을 건너 약속하신 땅에 이른 이스라엘(1-8절)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며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전장에서 택하여 놓은 열두 사람에게 일을 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일을 시켜야 그 일이 잘 됩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요단에 돌 열둘을 취하고 언약궤를 멘 제사장의 발이 요단 강 가운데 굳게 서 있고 백성들은 강을 건너가게 하였는데, 제사장이 선 그 곳에서 돌 열둘을 취하여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말씀의 역사가 있는 그 곳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기념하다 (9-16절)

강 가운데 제사장이 있던 곳에 세운 열두 돌은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가게 해주시는 상황에 대한 증거로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건넌습니다. 요단강 물이 다시 내려오면 다 죽기 때문에 강물이 내려오지 않도록 막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일 분, 일 초라도 마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건너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강 가운데 열두 돌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환난 가운데서 간구한 증거석(證據石)이요, 믿음으로만 나간 증거석입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여호수아 5:1-15** 이방 왕들이 두려워하다**하나님의 능력 앞에 떠는 왕들**

**1**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야훼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할례를 행하심으로 애굽의 수치에서 완전히 벗어남**

**2** 그 때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3**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4**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5**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6**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훼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사십 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7** 그들의 대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8**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낮기를 기다릴 때에 **9**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10**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 그 달 십사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11**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13**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4**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야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 야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시편 132편

**8** 야훼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9**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 이사야 65장

**13** 이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 되 너희는 주릴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14**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우므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프므로 울며 심령이 상하므로 통곡할 것이며

### 마태복음 13장

**42**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3**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 읽기 가이드

여호수아 5:1-15

### 이방 왕들이 두려워 하다

#### 하나님의 능력 앞에 떠는 왕들(1절)

가나안 족속의 왕들과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원수들이 벌써 사기가 떨어져 아무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원수는 그 앞에서 맥을 못 추고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원수와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요단강과 같은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을 승리로 통과하면 자신은 강해지고 원수를 이기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는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 할례를 행하심으로 애굽의 수처에서 완전히 벗어나남 (2-15절)

할례(割禮)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법인데, 태어난지 8일 남자의 양피(陽皮) 끝을 자르는 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애굽에서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 후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40년 광야생활 동안 방황할 때는 할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광야에서 다 쓰러졌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인데,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 의미는 애굽의 수처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의 종 된 모습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아궤의 군대 장관을 만나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여호수아 6:1-15** 여리고 성을 돌며 행진 하다**야훼의 궤가 앞장서서 가다**

**1**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2**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3**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옛새 동안을 그리하라 **4**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6**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야훼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7**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야훼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8**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야훼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9**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10**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양각 나팔을 불며 행진**

**11** 야훼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12**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야훼의 궤를 메고 **13**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야훼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야훼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14**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옛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15**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 말씀으로 기도하기 |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시편 135편

**4**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  
이로다 **5** 내가 알거니와 야훼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  
시도다

### 이사야 66장

**11**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뺀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12**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  
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 같이, 그에게 못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 마태복음 14장

**30**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 읽기 가이드

여호수아 6:1-15

### 여리고 성을 돌며 행진 하다

#### 야훼의 계가 앞장서서 가다(1-10절)

1-5장까지는 정복 정착 전쟁을 위한 이스라엘의 사전 준비과정이었던 것에 반해 본 장은 이스라엘이 첫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여리고 성 정복 사건에 대한 언급입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여리고 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중으로 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견고하여 선불리 공격하면 도리어 실패할 위험이 컸다고 합니다. 특히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 동편 아모리인의 두 왕을 격파했을 뿐만 아니라(수 2:10,11) 얼마 전에는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넌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문을 굳게 닫고 철통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음을 분명히 밝히시고, 여리고 성 공략 방법을 지시하셨습니다.

#### 양각 나팔을 불며 행진(11-15절)

‘길게 울려 불어서’ 이는 기쁨의 나팔을 길게 뿜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나팔 소리 역시 이중적인 역할을 합니다. 빗장까지 걸어 잠근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소리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증거입니다(출 19:13).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큰 소리’(테루아:תְּרוּעָה)는 함성을 뜻하며, 회쳐 부를(루아:לְרֹא)은 귀먹게 할 정도로 소리를 지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귀먹게 할 정도의 큰 함성을 지르라.’는 뜻입니다. 이 소리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여호수아 7:1-15 한 사람의 영향력

## 아간의 죄로 인하여 찾아온 패배

**1**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2**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뵈엘 동쪽 벤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3**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삼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4** 백성 중 삼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5** 아이 사람이 그들을 삼십육 명쯤 쳐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 같이 되니라 **6**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야훼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7**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8**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9**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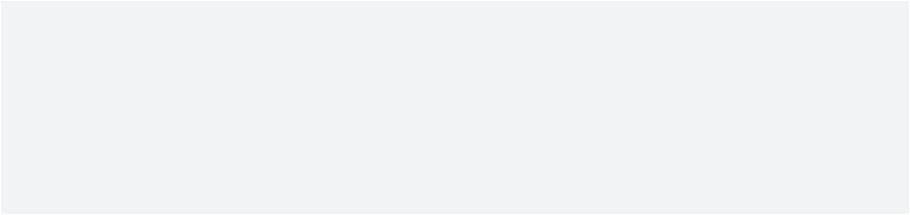
**10**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12**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3**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14**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야훼께 뵈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야훼께 뵈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야훼께 뵈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15**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뵈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야훼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 말씀으로 기도하기 |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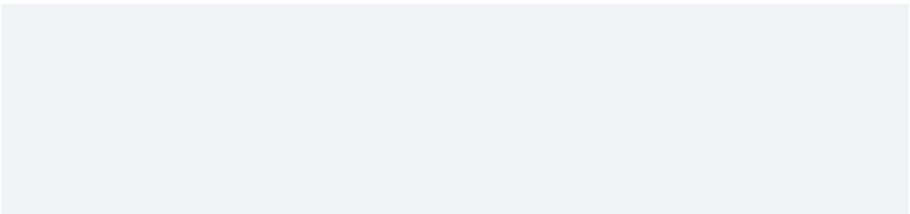
### 시편 138편

**8**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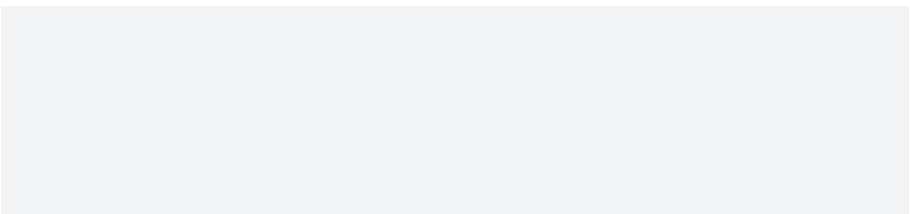
### 예레미야 1장

**9**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10**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 마태복음 15장

**11**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 읽기 가이드

여호수아 7:1-15

### 한 사람의 영향력

#### 아간의 죄로 인하여 찾아온 패배(1-10절)

앞선 전쟁의 승리를 통해 승기가 오른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정탐꾼을 보낸 결과 아이성은 이스라엘에게 그리 어렵지 않은 상대라는 것이 확인됐고 즉각 출정했으나 결과는 쓰라린 패배였습니다. 원인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1절).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만들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투에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범죄는 무서운 결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는 당사자를 넘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하나님(10-15절)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책임감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며 동시에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찾아온 문제를 여호수아 한 사람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역전시키시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대단한 영향력을 드러냈듯 한 사람의 엎드림 역시 대단한 영향력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엎드리는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여호수아 8:1-17**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

**1**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2**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명령을 전달하는 여호수아**

**3**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삼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4**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5**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 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6**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7**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8**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야훼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9**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벤엘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전쟁**

**10**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11**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 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12** 그가 약 오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벤엘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13**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14**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15**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깃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16**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17** 아이와 벤엘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 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시편 139편

- 23**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 예레미야 2장

- 2**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 마태복음 16장

-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 읽기 가이드

여호수아 8:1-17

###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1-2절)

아간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신 하나님은 이제 직접 아이와의 전쟁을 지휘하기 시작하십니다. 완벽한 지휘관이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그에게 전쟁의 작전을 가르치시며 지침을 주십니다. 이것은 이 전쟁이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이 지휘하시는 전쟁은 실패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 명령을 전달하는 여호수아(3-9절)

이스라엘의 최고 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명령을 하달 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전달하면서 함께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것은 부름 받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습니다. 최고 사령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전쟁(10-17절)

완전한 지휘관이신 하나님과 그 앞에 충성된 여호수아,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는 백성들의 완전한 연합으로 전쟁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치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여호수아 9:1-15**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은 자들의 반응**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사람들**

**1**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2**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꾀를 내는 기브온 사람들**

**3**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4**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해어진 전대와 해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5** 그 발에는 낱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낱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6**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7**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니 **8**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9**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10**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11**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12**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13**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14**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15**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 하였더라

##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시편 140편

**12** 내가 알거니와 야훼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13**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 예레미야 3장

**14** 야훼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이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15**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 마태복음 17장

**20**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 읽기 가이드

여호수아 9:1-15

###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은 자들의 반응

####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사람들(1-2절)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한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은 가나안을 포함한 인근 사람들에게 분명히 큰 화제였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들의 상반된 결과가 9장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막강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 주변 국가들이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전해 들었음에도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저항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복된 소식을 거절하는 이들에게는 결국엔 심판을 통한 멸망 밖에 없습니다.

####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꾀를 내는 기브온 사람들(3-15절)

두 번째 반응은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앞선 이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편에 서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누군가를 통하여 듣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선택을 했기에 오늘의 삶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브온 사람들의 선택은 현명하고 복된 선택이 되었습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여호수아 10:1-15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심

##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다

**1** 그 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텍이 듣고 **2**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3**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텍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아르뭇 왕 비탐과 라기스 왕 아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4**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5**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6**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7**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전쟁

**8** 그 때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9**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10**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륙하고 벧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11**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벧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야훼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12**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야훼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여다 하매 **13**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4** 야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15**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시편 143편

**8**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  
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 예레미야 4장

**4**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야훼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 마태복음 18장

**19**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  
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 읽기 가이드

여호수아 10:1-15

###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심

####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다(1-7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를 점령하였고 아이성을 차지하였으며 오늘 말씀처럼 기브온으로부터 화친을 받아 냅니다. 다섯 나라가 동맹하여 기브온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기브온을 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나안이라는 큰 정복을 앞두고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전쟁(8-15절)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빠른 도움을 요청했고 여호수아는 그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 즉시 길갈에서 떠나 기브온으로 밤새도록 올라갔고, 기브온 성을 향해 진을 친 아모리 다섯 왕들의 군대들을 갑자기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고 격려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크게 치셨고 패하게 하셨고, 또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았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한 증거입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여호수아 11:1-15 야훼의 말씀대로 행하는 여호수아

##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1**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2**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3**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4**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5**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아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 가에 함께 진 쳤더라 **6**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여호수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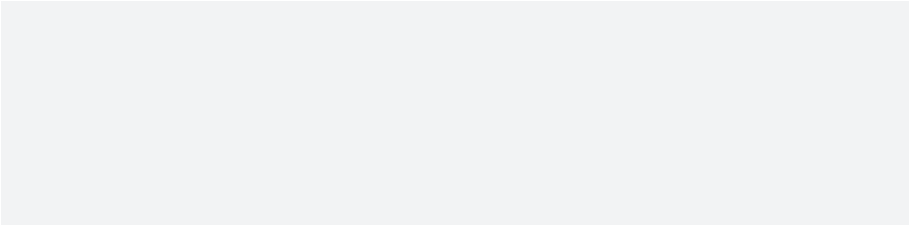
**7**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 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8**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죽이고 **9** 여호수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10**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 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죽이고 **11**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12**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야훼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13**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14**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15** 야훼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 말씀으로 기도하기 |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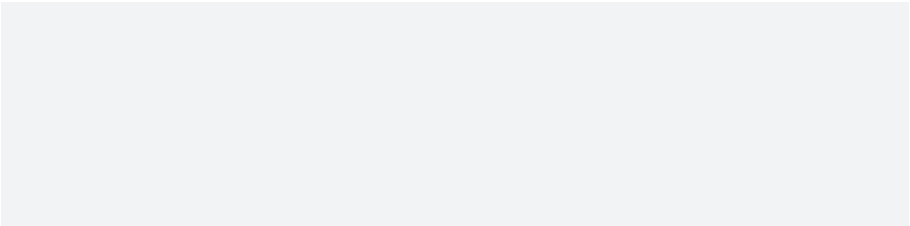
### 시편 144편

**2** 야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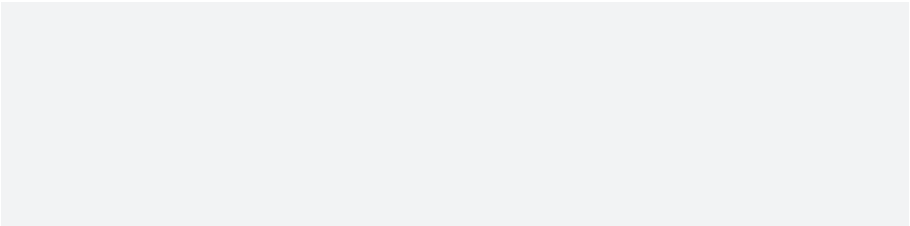
### 예레미야 5장

**1**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 마태복음 19장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 읽기 가이드

여호수아 11:1-15

### 야훼의 말씀대로 행하는 여호수아

####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1-6절)

북부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운 대적자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인해 두려워 말라고 하시며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그들을 습격했고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격파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서 죽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뜻과 그의 손에 달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그의 지시와 명령대로 행하였기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여호수아(7-15절)

여호수아는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완전히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고 또 하솔만 불로 살랐으며 또 그 왕들의 모든 성읍들과 그 모든 왕들을 칼날로 쳐서 다 멸하여 야훼의 종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하였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말씀에 순종만 했더니 모든 전쟁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여호수아 12:1-8 땅이 분배되다

## 여호수아 12:1-8 모세를 통해 기업을으로 주신 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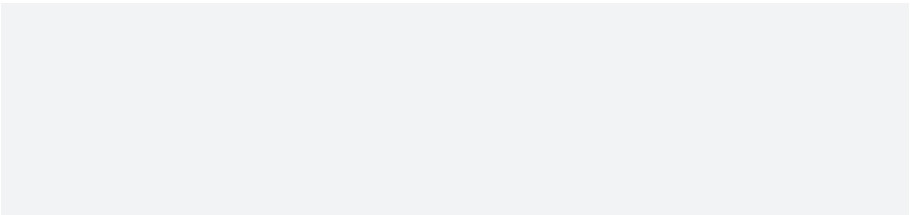
**1**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2**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압복강까지이며 **3**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4**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5**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밋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6** 야훼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야훼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으로 주었더라 **7**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 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8**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 겹 곧 헛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 말씀으로 기도하기 |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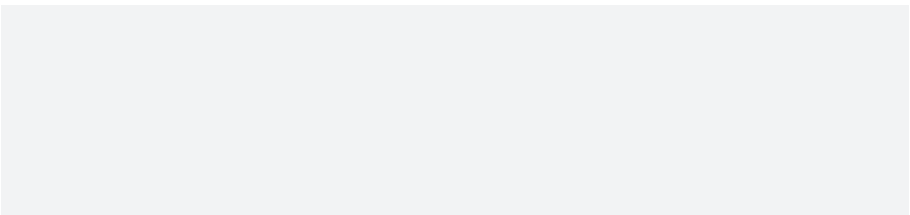
### 시편 145편

**18**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데다 **19**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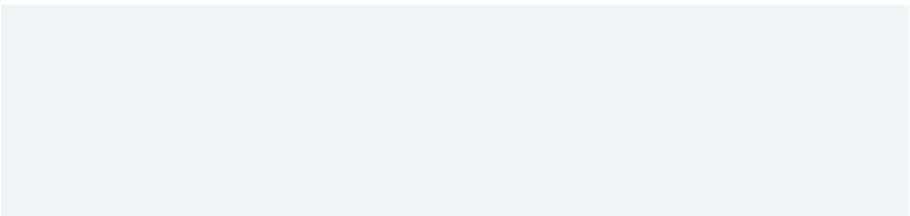
### 예레미야 6장

**16**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 마태복음 20장

**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 읽기 가이드

여호수아 12:1-8

### 땅이 분배되다

#### 모세를 통해 기업으로 주신 땅(여호수아 12:1-8)

요단 동편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두 지파 반의 요구에 따라 그들에게 이 땅을 할당해 주고 나누어 줍니다. 모세가 그 땅을 점령한 후 나누어 준 일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요단 이편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 역시 그리하여야 한다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자기 생전에 매우 풍요로운 땅을 이스라엘의 일부 지파에게 주었으나 그 땅은 요단강 바깥쪽에 위치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단강 안쪽에 있는 거룩한 땅, 곧 하나님의 성스러운 대지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여호수아 14:1-15** 네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는 믿음**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1**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2**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3**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었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4**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5**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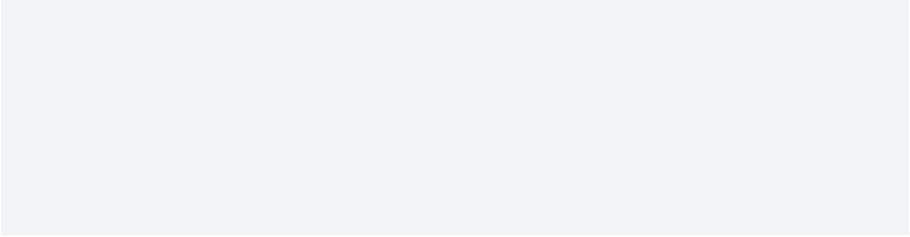
**6** 그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야훼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7** 내 나이 사십 세에 야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 **9**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0**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사십오 년 동안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팔십오 세로되 **11**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 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 그 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13**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14**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15**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랴트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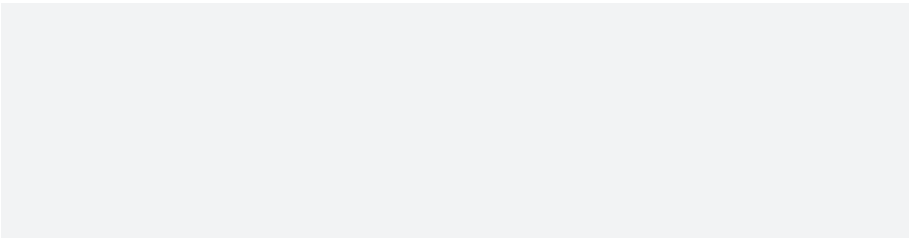
**시편 146편**

**5**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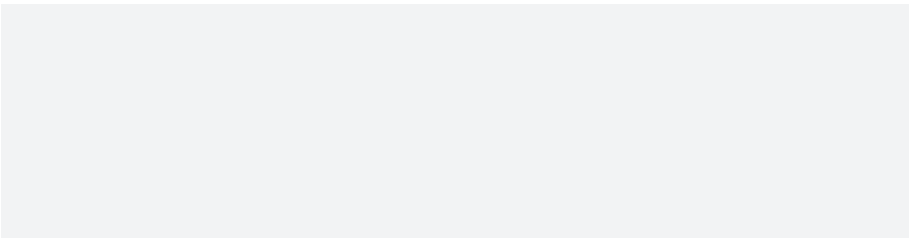
**예레미야 7장**

**3**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 곳에 살게 하리라



**마태복음 21장**

**2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 읽기 가이드

여호수아 14:1-15

### 네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는 믿음

####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1-5절)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아홉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으로 제비 뽑아 나누어준 땅들과 성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아무 기업도 주지 않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를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의 분배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알게 되며, 제비를 뽑는 것은 공평하게 분배가 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6-15절)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과 그의 약속과 그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중들에게 긍정적 보고를 하고 믿음의 권면을 할 수 있었습니다. 8, 9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좇았은즉.”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를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주위의 거대한 불신앙적 상황에 굴하지 않았으며 45년이 지난 이제도 가나안 정복의 전쟁에서 변함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여호수아 17:1-13 서쪽 므낫세 자손에게 주는 기업

##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

**1**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2**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3**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4**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아와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야훼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5**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열 분깃이 돌아갔으니 **6**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7**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8**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9**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10**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잇사갈에 이르렀으며 **11** 잇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벤 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므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12**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13**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시편 148편**

**5** 그것들이 야훼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시므로 지음을 받았음이라

**예레미야 8장**

**4**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22장**

**32**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 읽기 가이드

여호수아 17:1-13

### 서쪽 므낫세 자손에게 주는 기업

####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1-13절)

유다 자손들과 요셉 자손들은 그들이 제비 뽑은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므낫세 자손은 그 성읍들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그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했고,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못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전쟁은 불완전한 정복이었습니다. 유다 자손들은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에브라임 자손들도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정복이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도덕적 부패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여호수아 18:1-10 미정복 지역의 분배

## 7지파에게 분배 받을 지역작성을 지시

**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2**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을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3**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4**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5**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6**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 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7**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야훼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야훼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 7지파가 분배 받을 지역작성을 위한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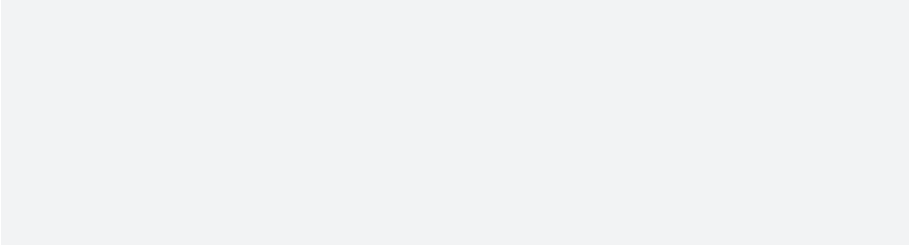
**8**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야훼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9**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10**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야훼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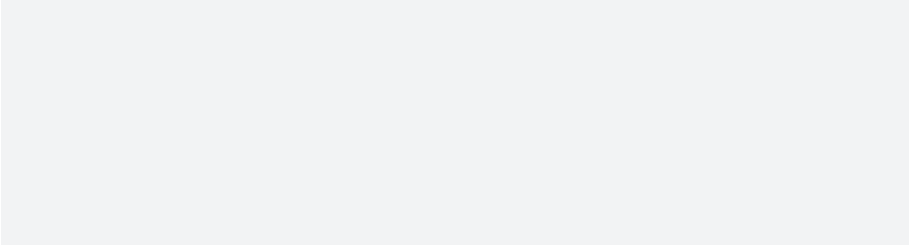
**시편 150편**

**6**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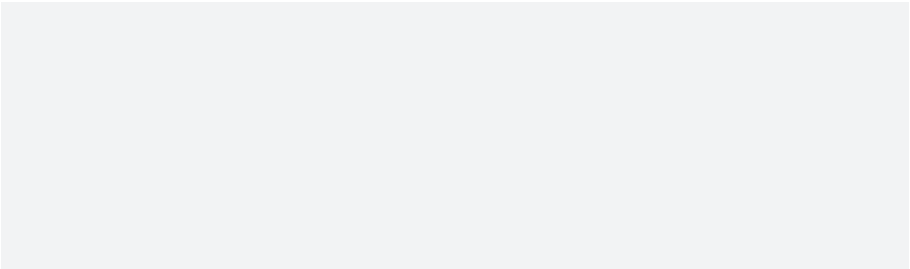
**예레미야 9장**

**24**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야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23장**

**12**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 읽기 가이드

여호수아 18:1-10

### 미정복 지역의 분배

#### 7지파에게 분배 받을 지역작성을 지시(1-7절)

땅을 배정받지 못한 남은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기 위해 실로에 모인 회중들이 회막을 세웠습니다. 실로에 세워진 회막은 사울 시대 이전까지 실로에 위치하였습니다. 실로에 회막이 있다는 것은 실로가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군사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벤엘 북편에서 세겔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에 위치하였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져 있습니다. 회막이 실로에 세워진 이유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에게 공평하고 알맞은 분배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먼저 분배를 받은 지파들에게는 이미 좋은 땅이 분배되었고, 나머지는 척박하거나 지형적 경계가 어려운 지역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지파분배가 미진해진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중심부인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종교 공동체성을 함양함과 동시에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임을 상기시켜 기업분배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배분받는 것은 단순히 남은 땅을 배분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룩한 행위임을 인지하기 위해 회막을 세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레위 지파는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야훼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이며(수 13:14), 야훼께서 친히 레위지파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민 18:1; 수 13:33).

#### 7지파가 분배 받을 지역작성을 위한 출발(8-10절)

‘야훼 앞에서’는 ‘회막 앞에서’를 가리킵니다. 회막 앞에서 기업을 나누는 일은 지도자 여호수아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배분하려는 것입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여호수아 20:1-9 도피성의 지정

## 도피성의 목적

**1**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3**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4** 이 성읍들 중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5**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6**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 여섯 도피성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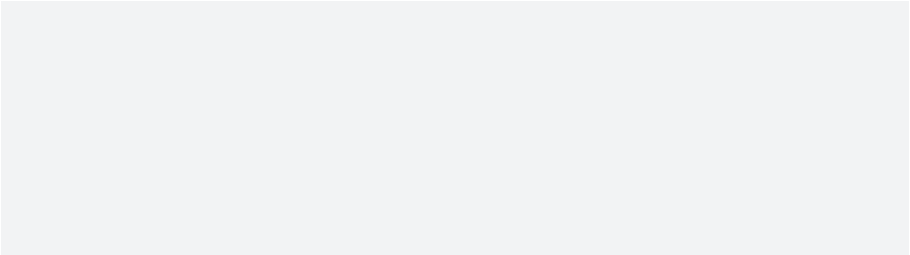
**7**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겟과 유다 산지의 기랴트 아르바 곧 헤브론과 **8**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9**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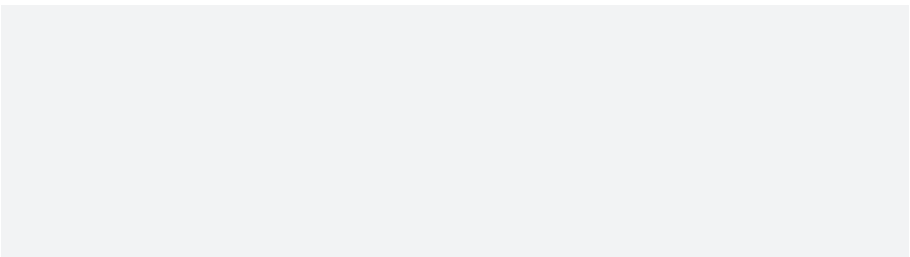
#### 사도행전 1장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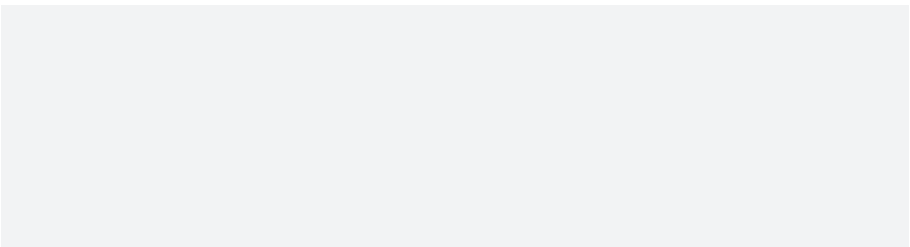
#### 예레미야 10장

**6** 야훼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 마태복음 24장

**38**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39**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 읽기 가이드

여호수아 20:1-9

### 도피성의 지정

#### 도피성의 목적(1-6절)

도피성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살해한 사람이 피의 보복자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도피처였습니다. 즉, 도피성은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살인 사건을 다루며, 살인사건이 일어난 후 살인자가 가장 먼저 찾아가는 장소입니다. 살인할 의사가 전혀 없이 실수로 잘못 살인을 저지른 경우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재판을 통해 공개적으로 판단받기까지 일단 피해 있을 피난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도피성은 바로 이러한 우발적인 살인범을 개인의 복수로부터 보호하고, 그 생명을 살려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에 피난가 있다 할지라도 살인의 이유에 고의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 여섯 도피성의 위치(7-9절)

6개의 도피성 이름이 나열됩니다. 세 개는 도피성은 요단 강 동쪽에, 다른 세 개의 도피성은 요단강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드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전역에 도피성을 지정하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지역에서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길도 닦아 놓아야 했습니다. 각 도피성의 위치를 지도에 펼쳐 살펴보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약 50Km 안에 위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평균 시속 5km를 걸어 10시간을 걸으면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도피성의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즉,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여호수아 22:15-27** 임무를 완수한 동편 지파가 요단가에 제단을 쌓음

### 동편지파에 진상조사단을 파견

**15**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16** 야훼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 죄하여 오늘 야훼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야훼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17** 브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야훼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18** 오늘 너희가 돌이켜 야훼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야훼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19**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야훼의 성막이 있는 야훼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야훼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야훼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20**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므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 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 동편지파의 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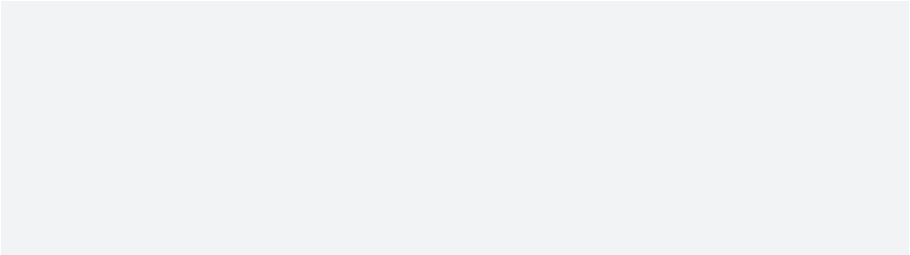
**21**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22** 전능하신 자 하나님 야훼, 전능하신 자 하나님 야훼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야훼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23**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야훼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나 야훼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24**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25**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야 야훼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야훼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야훼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26**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27** 우리가 야훼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야훼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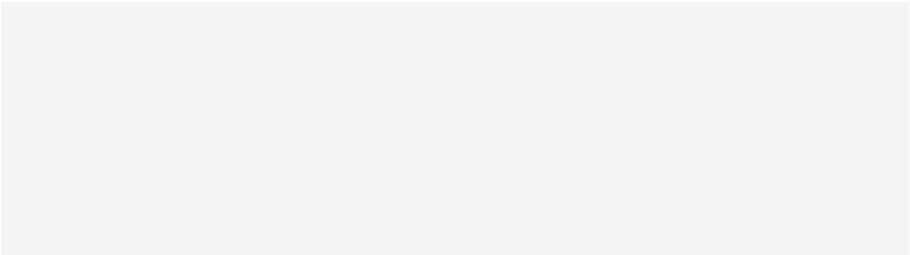
#### 사도행전 2장

**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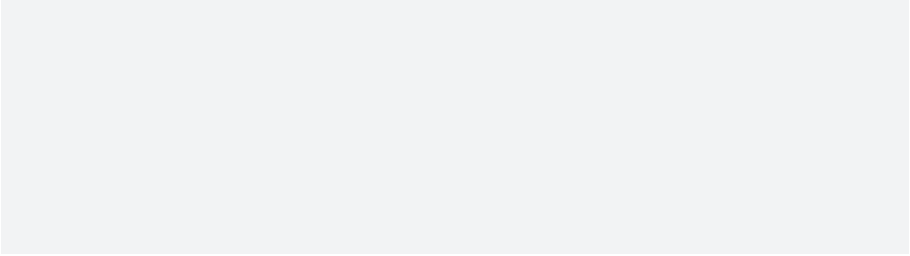
#### 예레미야 11장

**4**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 마태복음 25장

**21**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 읽기 가이드

여호수아 22:15-27

### 임무를 완수한 동편 지파가 요단가에 제단을 쌓음

#### 동편지파에 진상조사단을 파견(13-20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난 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자손은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그 댓가로 받은 그들의 기업이 있는 길르앗 땅으로 건너가는 도중에 요단 언덕 가에 큰 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면서 이 세 지파에 대해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워진 실로에 있는 유일한 제단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제사를 위해 다른 장소에 제단을 세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둘로 나뉘어지면 이스라엘의 공동체도 둘로 나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위기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세 지파의 행동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반역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군대를 소집하여 그들을 심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전쟁에 임하지 않고, 전쟁에 앞서서 세 지파에게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보내 회개를 촉구하는 한편, 왜 그렇게 큰 제단을 쌓았는지 자초지종을 듣게 했습니다.

#### 동편지파의 해명(21-29절)

요단 동편으로 간 세 지파가 가나안땅 요단 언덕 가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 순수한 목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나안땅 요단 언덕 가에 세 지파가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자신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단은 이스라엘과의 연합의 표시로 세운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세 지파의 제단을 본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남은 지파들을 향해 반역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여호수아 23:1-16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 여호수아의 당부

**1** 야훼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2**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3**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4**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5**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6**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7**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8**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9** 이는 야훼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10** 너희 중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11**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 여호수아의 경고

**12**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13**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14**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15**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야훼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6**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야훼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 사도행전 3장

**6**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 예레미야 12장

**3** 야훼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한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 마태복음 26장

**40**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 읽기 가이드

여호수아 23:1-16

###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 여호수아의 당부(1-11절)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하시며,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수많은 일들을 상기시켜 보라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응당 취해야 할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아 두려움에 떨던 당시에,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바를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 여호수아의 경고(12-16절)

만약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긋난 삶을 살아간다면, 다시 말해서 주변 나라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에서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가는 길이란 죽음을 가리킵니다. 죽음이 임박한 상태, 숨이 곧 넘어가는 상황에서 온 힘을 다해서 권면하는 한 마디는 여호수아의 인생을 통해 경험했던,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며, 지금 약속의 땅에서 누리고 있는 풍요와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은 언약을 어겼을 때 임하게 될 저주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그들의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가 된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하고 쫓겨났던 것처럼,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스라엘 또한 약속의 땅에서 멸망하여 토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여호수아 24:14-28 여호수아의 결단 촉구

##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

**14**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15**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16**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7** 이는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 하셨음이며 **18** 야훼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야훼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 이스라엘 백성의 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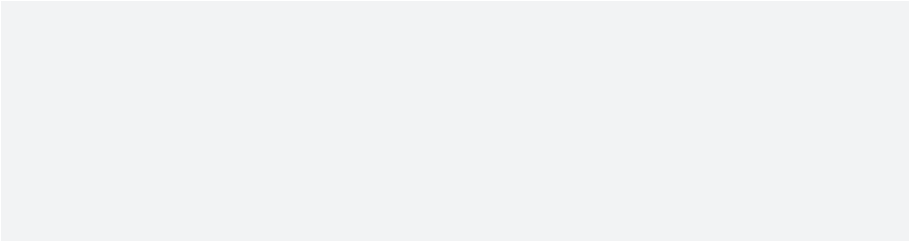
**19**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야훼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지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20** 만일 너희가 야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21**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야훼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22**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야훼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23**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로 향하라 하니 **24**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야훼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25**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겟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26**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야훼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27**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야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28**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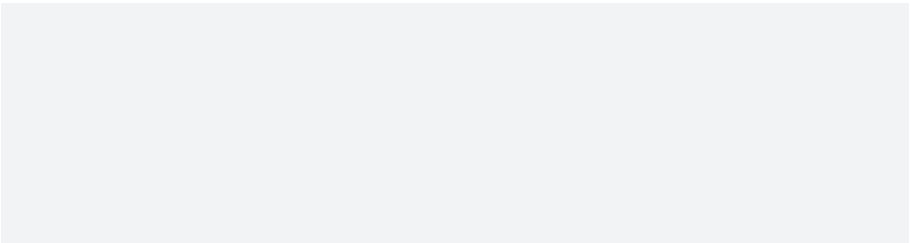
#### 사도행전 4장

**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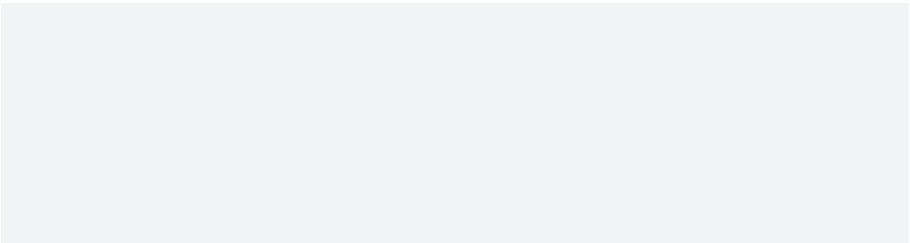
#### 예레미야 13장

**15**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야훼께서 말씀하셨음이라



#### 마태복음 27장

**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 읽기 가이드

여호수아 24:14-28

### 여호수아의 결단 촉구

####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14-18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와 소원을 충족시켜 주시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바람, 세상적인 풍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방신들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야훼만을 섬겨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권면에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으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스라엘 백성의 맹세(19-28절)

이스라엘에게 한 여호수아의 당부와 요청은 오직 야훼만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에는 '봉사하다, 시중들다. 순종하다, 예배하다' 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기름진 제물을 드리고 형식적인 거룩한 예배 형태만을 갖춘다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사도행전 5:1-16 성령의 역사하심

##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1**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5**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6**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7**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9**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10**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 사도들의 표적

**12**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3**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4**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5**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사사기 1장

**1**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쭙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2** 야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 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 예레미야 14장

**20** 야훼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 나이다 **21**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 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 마태복음 28장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읽기 가이드

사도행전 5:1-16

### 성령의 역사하심

####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1-11절)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는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라고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들을 성령을 속이는 죄로 물었고 이들은 혼이 떠나 죽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속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적인 징계를 당한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교회의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죄를 전염시키는 누룩은 제거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죽은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이를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초대교회에 이렇듯 역사하심으로써 교회는 더 순전하고 온전하여지게 되었습니다.

#### 사도들의 표적(12-16절)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손을 통해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습니다. 이에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 시작하였고, 백성들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믿는 사람들을 칭송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강력하게 임하여서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였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 침대와 요에 덮일 때 치료함을 입기 위함이었습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사도행전 6:1-15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핍박

## 일곱집사가 세워지다

**1**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2**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5**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 스테반 집사가 모함당하다

**8**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9** 이른 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새 **10**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11**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12**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13**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15**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 말씀으로 기도하기 |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사사기 2장

**18**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였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야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므로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라

### 예레미야 15장

**20**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21**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 마가복음 1장

**9** 그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10**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 읽기 가이드

사도행전 6:1-15

###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핍박

#### 일곱 집사가 세워지다(1-7절)

초대교회는 큰 부흥을 맞이하면서 성도의 수가 늘어나며 해야 할 사역들이 많아지면서 내부의 문제를 겪게 됩니다. 헬라파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 제외되는 것 때문에 히브리파 성도들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열두 사도는 모든 제자를 불러 모읍니다.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고 7명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 교회의 일들, 즉 구제와 접대 등의 임무를 맡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동안 복음에 반대 입장에 있던 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 스데반 집사가 모함당하다(8-15절)

일곱 집사중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가운데 행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복음을 논쟁할 때도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이 모든 것에 대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스데반에 능히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대적할 수 없음을 알고 스데반을 잡아다가 공회에 세우고 거짓증거자를 통해 모함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으로 두 세 사람의 증언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증인들은 매수된 사람으로 거짓증언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 거짓증언은 죄악 중에 중한 범죄로 십계명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출20:16) 또한 거짓증언에 대한 형벌이 무겁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신19:18-19)이 거짓 증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말하며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러 죄악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 중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사도행전 7:44-60 스테반의 설교와 순교

## 스테반의 설교

**44**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45**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46**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47**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8**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49**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50**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51**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2**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 스테반의 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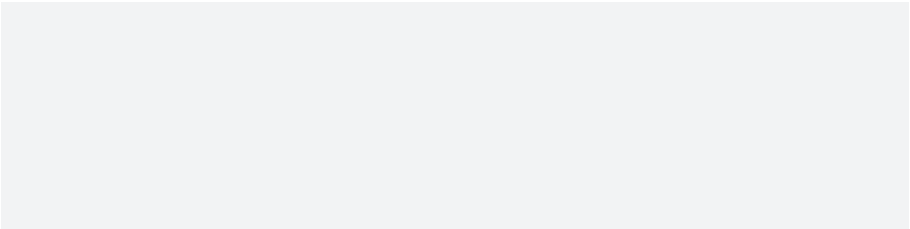
**54**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5**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 대 **57**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 성 밖으로 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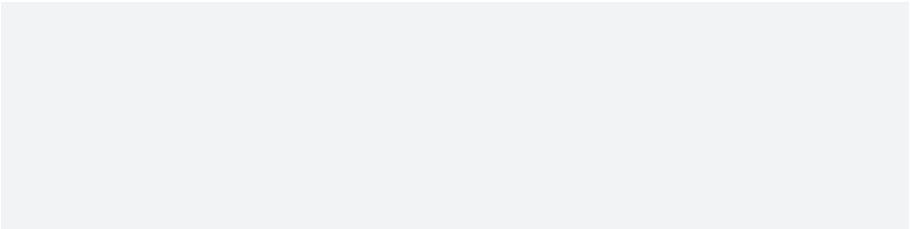
### 사사기 3장

**9**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으매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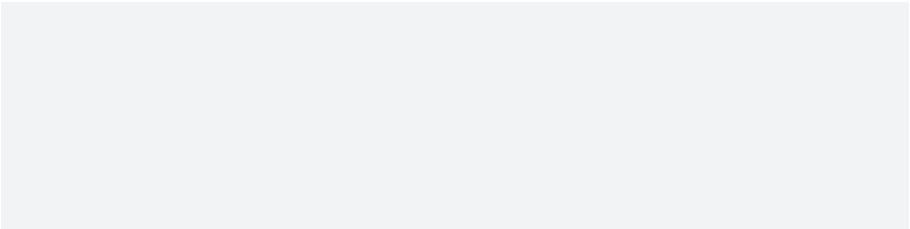
### 예레미야 16장

**21** 야훼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 마가복음 2장

**17**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 읽기 가이드

사도행전 7:44-60

###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

#### 스데반의 설교(44-53절)

일곱 집사 중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설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구약을 가로질러 그리스도를 명확히 증거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열두 아들을 거쳐 모세를 통해 이루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형성, 그리고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 그리스도를 선명히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는 자들을 목이 곤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며 질타를 합니다. 스데반은 이 죄는 성령을 거스르는 큰 죄임을 밝힙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민족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 스데반의 순교(54-60절)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를 핍박하는 자신들의 잘못이 들추어내지자 분개하게 됩니다. 그들은 회개를 하기는 커녕 진리를 말하는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면 누군가는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누군가는 찔림을 받고 분노합니다. 스데반은 수많은 무리들이 던지는 돌에 맞으며 순교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60절) 고백하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도행전 8:1-17** 박해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다.**박해와 복음의 전파**

**1**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됨**

**5**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8**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9**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0**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대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11**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12**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13**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4**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17**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 말씀으로 기도하기 |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 사사기 4장

**4** 그 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5**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벧엘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 예레미야 17장

**7**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 마가복음 3장

**14**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 읽기 가이드

사도행전 8:1-17

### 박해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다

#### 박해와 복음의 전파(1-4절)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사울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할 작정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집에 들어가 남녀를 불문하고 끌어다가 옥에 넘기게 됩니다. 이러한 박해를 피하여 성도들은 유대 전역으로 흩어집니다. 심지어 사마리아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흩어짐은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됨(5-17절)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에 전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비록 성령을 이용하고자 했던 마술사 시몬 같은 이도 있었지만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빌립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던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으며 중풍병자들과 못 걷던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표적과 병 고침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도행전 9:1-20** 사울이 복음전파자로 택함 받음**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

**1**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  
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 땅에 엎  
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6** 너는  
일어나 시대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8** 사울이 땅에서 일  
어나 눈은 뿔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복음전파자로 부름 받음**

**10**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  
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  
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2**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  
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3**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  
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  
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15**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 아  
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  
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  
게 하신다 하니 **18**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  
나 침례를 받고 **19**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  
께 며칠 있을새 **20**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사사기 5장

**31** 야훼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사십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 예레미야 18장

**6**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 마가복음 4장

**39**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 읽기 가이드

사도행전 9:1-19

### 사울이 복음전파자로 택함 받음

####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1-9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스테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는 살기등등한 태도로 제자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자 공문을 받아 다메섹을 향해 떠납니다. 그러나 길가에서 하늘로부터 홀연히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됩니다. 사울이 그 빛에 엎드려져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4절)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사울은 눈이 멀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는 평생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살아왔는데, 그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깨달자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 사울이 복음전파자로 부름 받음(10-20절)

예수님은 제자 아나니아를 환상가운데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처음에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기에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주동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는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는 주님께 순종하여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던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열심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사도행전 10:1-16 고넬료의 회심

## 고넬료가 본 환상

**1**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야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 하루는 제 구 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4**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5**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6**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7**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8** 이 일을 다 이르고 욥바로 보내니라

## 베드로가 본 환상

**9**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 시더라 **10**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1**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12**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13**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14**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대 **15**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 사사기 6장

**6**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 예레미야 19장

**13**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 마가복음 5장

**7**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 읽기 가이드

사도행전 10:1-16

### 고넬료의 회심

#### 고넬료가 본 환상(1-8절)

베드로는 이번 장에서는 이방인까지 전도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13장 이후 본격화될 이방 선교의 새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 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구제하기를 힘쓰며 늘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환상 중에 천사의 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청해 오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환상을 받게 된 주요한 원인은 그가 경건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일을 즐겨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에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 베드로가 본 환상(9-16절)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할 것을 명하신 주께서는, 또한 베드로에게 그 초청에 기꺼이 응하도록 미리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먹기를 거절하자 자신이 깨끗하게 하신 것은 속되지 않고 밝히십니다. 이 환상은 아직도 유대주의적 관점에 한정해서만 복음을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의 편견을 교정할 목적으로 계시된 것이었으나,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환상의 내용에는 베드로가 수용하기 힘든 장벽이 있었던 것입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사도행전 11:1-18 베드로의 보고와 안디옥 교회

## 예루살렘 교회의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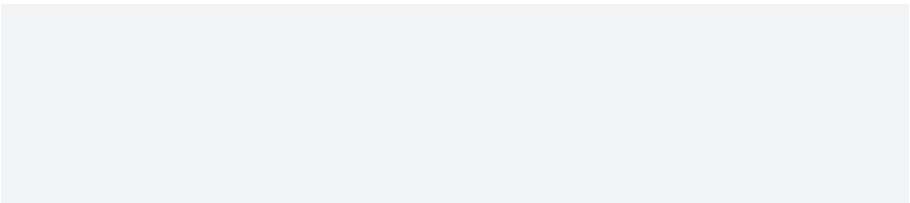
1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2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3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4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5 이르되 내가 옴바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6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7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8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9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10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11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12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13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옴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14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15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16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17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18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 말씀으로 기도하기 |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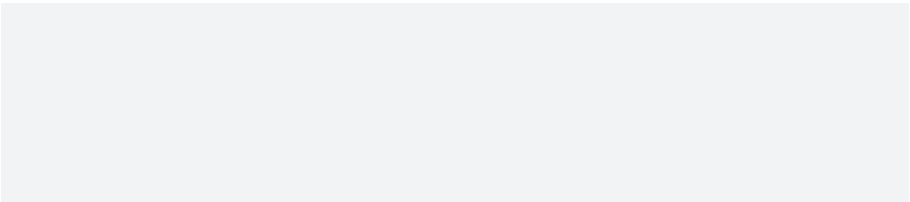
### 사사기 7장

**4** 야훼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끄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끄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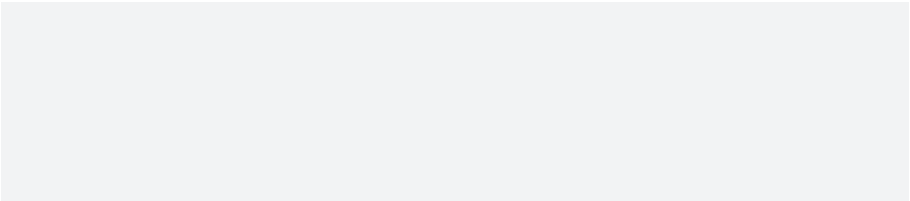
### 예레미야 20장

**13** 야훼께 노래하라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 마가복음 6장

**50**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51**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 읽기 가이드

사도행전 11:1-18

### 베드로의 보고와 안디옥 교회

#### 예루살렘 교회의 보고(1-18절)

본서에서 고넬료의 회심 기사가 거듭 강조하여 기록된 것은, 고넬료의 회심이 '복음의 확장' 과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반응' 으로 중요한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할례자들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자 그의 처사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그간 있었던 일들을 차례로 살피면서 고넬료 집의 방문부터 시작하여 이방인들의 성령 세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이었음을 증거합니다. 이로써 유대인들도 서서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심을 깨닫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사도행전 12:1-19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 헤롯의 박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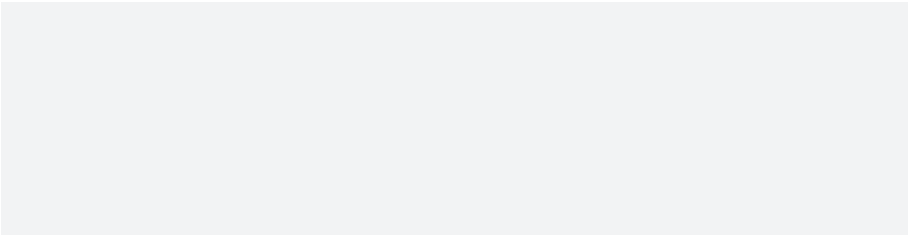
1 그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4 잡으매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 내고자 하더라 5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6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 천사가 이르되 따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걸음을 입고 따라오라 한 대 9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10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11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2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13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16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17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18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19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 말씀으로 기도하기 |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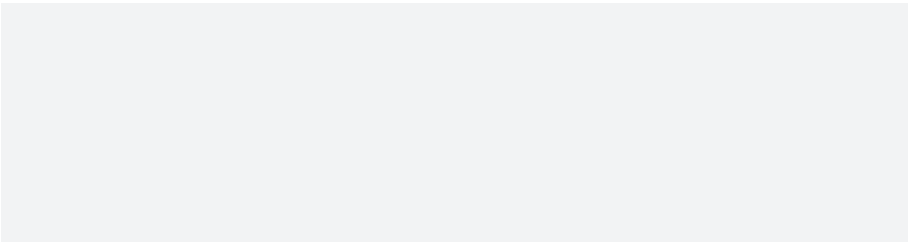
### 사사기 8장

**19**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 하였으리라 하고 **20** 그의 맏아들 여텔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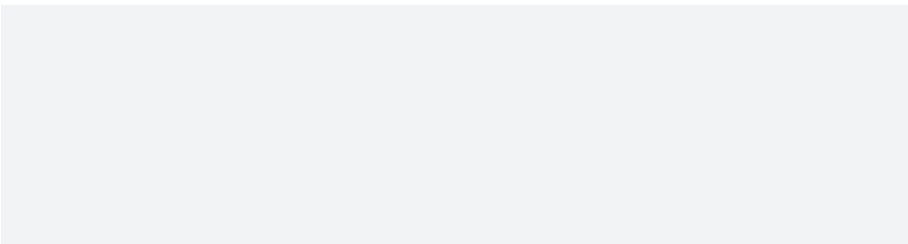
### 예레미야 21장

**8**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 마가복음 7장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 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 읽기 가이드

사도행전 12:1-19

###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 헤롯의 박해(1-19절)

복음의 확장으로 기독교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자 헤롯 아그립바 1세(A.D. 37-44)는 무자비하게 기독교를 탄압하였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의 모임 장소가 주로 회당이나 성전이였다는 사실은 기독교인 스스로 유대교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인정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격이 유대교의 한 분파로 간주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유보적 태도는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 이후에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베드로의 친이방적 행위를 사후 승인한 데서 그 반감이 증폭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사도행전 13:1-12 선교사가 된 바울과 바나바

##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

**1**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밋 사울이라 **2**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 구브로에서의 전도

**4**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5**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6**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7**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8**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9**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사사기 9장

**7**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겔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 예레미야 22장

**3**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 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 마가복음 8장

**35**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 읽기 가이드

사도행전 13:1-12

### 선교사가 된 바울과 바나바

####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1-3절)

본문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선교사로 택하고 파송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으로부터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였던 안디옥 교회의 출현을 끝으로 초대 교회사의 전편이 12장에서 끝나고, 13장부터는 바울의 선교사역이 시작됩니다. 세계 선교의 출발에 즈음하여 안디옥 교회는 금식과 기도를 한 후에 안수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됩니다. 비록 이 파송의 출발은 미약하였으나 성령의 폭발적 권능의 도우심으로 후일 유럽과 세계의 역사를 바꿔 놓는 발판이 됩니다.

#### 구브로에서의 전도(4-12절)

여기서부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전개됩니다. 구브로는 안디옥의 서남방에 위치한 섬으로 바나바의 출신지였습니다. 여기서 이들의 복음의 능력은 무속과 대결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이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향후 험난한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할 바울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게 되자 거짓 선지자 바예수와 만나게 됩니다. 바예수 사건은 이방 세계를 향한 기독교 선교에서 성령이 놀랍게 사역하고 있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사도행전 14:1-18 계속되는 선교 활동

## 이고니온에서의 전도

**1**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2**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3**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4**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5**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6**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7**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 루스드라에서의 선교 활동

**8**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9**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묵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11**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2**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13**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14**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15**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16**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17**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18**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사사기 10장

**15**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쭙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16**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야훼를 섬기매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 예레미야 23장

**31**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야훼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 마가복음 9장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 읽기 가이드

사도행전 14:1-18

### 계속되는 선교 활동

#### 이고니온에서의 전도(1-7절)

본문은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한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전도사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당시 이고니온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철저히 로마화된 번창한 도시였으며, 인종적으로는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등이 골고루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훗날 이곳은 선교 확산의 중심지로서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루스드라에서의 선교 활동(8-18절)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무지한 사람들의 눈을 밝혀서 참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자가 치유되자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 칭하며 신으로 칭송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옷을 찢고 외치기를,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자 복음을 전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사도행전 15:1-21 예루살렘 공의회

##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1**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3**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4**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함대 **5**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6**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7**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8**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다

**12**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13**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15**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16**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19**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21**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 말씀으로 기도하기 |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사사기 11장

**8**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9**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10**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야훼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 예레미야 24장

**6**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혈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7** 내가 야훼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 마가복음 10장

**14**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 읽기 가이드

사도행전 15:1-21

### 예루살렘 공회의

####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1-11절)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는 사도행전의 중심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바울의 ‘값없는 은혜의 복음’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1절), 이 일로 인해 바울 일행과 유대주의자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2절). 이에 대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이방인을 구원하실 때, 할례나 율법 준수와 관계없이(곧 유대인이 되는 문제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공포합니다. 즉 예루살렘 공의회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구원)은 할례와 율법 등을 지켜서가 아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확정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주셨다고 증언한 것이 뒷받침 되었습니다(행 10장).

####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다(12-21절)

당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공의회의 결정된 사항을 공표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택하고 구원을 얻게 하셨으며, 아모스 9:11-12을 인용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무너졌던(그리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다윗의 장막’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다시 회복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한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평화의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방인 신자들로 하여금 4가지(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금하게 합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사도행전 16:16-34 복음 전도의 기회인 고난

##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다

**16**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7**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9**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여 갔다가 **20**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1**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22**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 주 예수를 믿으라

**23**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 그가 이러 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꼬에 든든히 채웠더니 **25** 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26**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7**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28**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 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31**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34**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사사기 12장

**2**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3** 나는 너희가 도와 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 예레미야 25장

**5**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야훼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6**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써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7**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써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 마가복음 11장

**2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 읽기 가이드

사도행전 16:16-34

### 복음 전도의 기회인 고난

####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다(16-22절)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16절). 이 여종은 바울과 동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임을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악한 영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당신의 일꾼들을 알아보고 두려워 떠는 법입니다. 그는 바울 일행에게 여러 날을 소리쳤고 이 일로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습니다(18절). 결국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18절). 이처럼 우리는 악한 사탄의 권세와 그 수종자들이 오직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무력하게 되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들을 능히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 주 예수를 믿으라(23-34절)

그런데 여종으로 인해 수익을 얻어 살아가던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고발했고, 무리가 달려들어 바울과 실라를 매로 크게 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고난 중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 마침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들이 풀려날 기회를 얻었으나,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진으로 죄수들이 도망가 자결하려는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지진의 목적은 바울과 실라의 육체적 구원(감옥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간수의 영적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섭리)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막을 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성도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전할 기회와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도행전 17:16-34** 만물의 창조자이자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하나님**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에게 돌아오라**

**16** 바울이 아텐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17**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18** 어떤 에페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19**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20**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 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21** 모든 아텐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22**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텐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8**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29**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30**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부활의 삶을 소망하라**

**32**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3**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34**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 말씀으로 기도하기 |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사사기 13장

**4**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 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 예레미야 26장

**2**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야훼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야훼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3**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 마가복음 12장

**33**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34**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 읽기 가이드

사도행전 17:16-34

### 만물의 창조자이자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하나님

####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에게 돌아오라(16-31절)

아테의 아레오바고 철학자들 앞에서 행한 연설은 이방인 이교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22-31절). 당시 아테는 로마 세계의 훌륭한 지성적, 문화적 중심지의 하나로, 거대한 건물과 예술 작품 그리고 이교 신전으로 가득했습니다. 유일신 사상을 지닌 바울은 도시 전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 하며(16절) 종교심이 많은 이방인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의 복음을 ‘어떤 이상한 것’이라 여기며 그를 말쟁이라고 폄하했습니다(18-20절). 그럼에도 바울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는 분이심을 전했습니다(24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라고 전했습니다(25절). 헛된 철학과 우상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바울은 담대히 천지의 창조자는 오직 하나님임을 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27절).

#### 부활의 삶을 소망하라(32-34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격렬한 반발과 불신, 믿지는 않지만 계속 관심을 보이는 등 여러 반응을 낳았습니다(32절). 그러나 바울의 전도에 몇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34절).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조롱하고 거부한다면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향한 부활의 소망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도행전 18:1-23**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라!**

**1**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2**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3**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4**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 하니라 **5** 실라와 디모테가 마게도나라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6**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7**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8**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9**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1** 일 년 육 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의 판결**

**12**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13**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14**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이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 주는 것이 옳거니와 **15**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16**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17**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18**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 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19**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20**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21**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22**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묻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3**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 말씀으로 기도하기 |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사사기 14장

**6**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 예레미야 27장

**11**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받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12**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 마가복음 13장

**35**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6**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 읽기 가이드

사도행전 18:1-23

###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

####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라!(1-11절)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가서 18개월을 머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로 상업과 문화의 주요한 요충지이자, 매우 변화한 도시로서 지중해 연안 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도덕적, 종교적 부패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유대인 부부로서 바울과 함께 천막을 제조했고 그의 핵심적인 동역자로서 그와 함께 사역했습니다(2-3절).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하며(4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습니다(5절). 그러나 그들은 복음과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방과 멸시를 받는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9-10절). 주님은 바울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에 힘쓰는 이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며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 갈리오의 판결(12-23절)

갈리오의 판결은 기독교의 법적인 지위에 대해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갈리오는 이 갈등을 유대인들의 내부 논쟁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이렇게 판결합니다: ①기독교는 유대교처럼 로마법으로 보호받는 종교이다. ②그리스도인들은 로마법에 대해 무죄하다. 이 판결은 가까운 장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됩니다. 바울이 안디옥에 돌아옴으로써, 그리스 북부(마게도냐)와 남부(아가야)에서 집중적으로 행한 2차 전도 여행(행15:36-18:22)이 마무리됩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사도행전 19:1-20 하나님 나라의 역사

## 하나님 나라의 도에 순종하라

**1**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3**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4**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6**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8**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11**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13**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14**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17**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20**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사사기 15장

**8**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19** 하나님께서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 예레미야 28장

**14**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15**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야훼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 마가복음 14장

**36**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37**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8**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 읽기 가이드

사도행전 19:1-20

### 하나님 나라의 역사

#### 하나님 나라의 도에 순종하라(1-10절)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성령을 받았는지 물어봅니다(1-2절). 그러나 그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2절).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의 침례를 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4-6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 침례는 요한이 베풀 회개의 침례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과, 구원의 새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합니다(8절).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비방하고 거부했습니다(9절). 이에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고, 바울의 사역으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10절).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굳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도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11-20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큰 능력을 더하시라 귀신이 쫓겨 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침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11-12절). 당시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방에는 혼합주의(마술을 유대교 및 이교의 예식과 결합하는 행위)가 성행했는데, 이교도 축사자들은 효과가 있다고 여기면 주문이나 마술 행위를 가리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축사자들은 복음의 능력이 알려졌을 때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 악귀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러한 혼합주의자였습니다. 바울과 달리 그들이 악귀를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런 기적이 마술적인 주문 등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거룩하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7월 5일  
공과

## 당신을 통하여

🎵 하나님 찬양하기

- 393장(통447) 오 신실하신 주
-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 마음 열기

한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 말씀 열기

본문읽기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 배경 이해하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예루살렘에 살면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받게 될 심판을 경고한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이 우상봉배와 불의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바벨론을 사용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아픔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 말씀 나누기

#### 관찰과 묵상

1.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시고자 부르시는 장면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신가요?(5절) 그리고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6절)

2.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 없어하는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7-8절)

7절 : \_\_\_\_\_

8절 : \_\_\_\_\_



### 적용과 나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개인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능력을 가지고 감당하다가 실패하거나 낙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경험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세요.

### 관찰과 묵상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와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입니다. 이것은 각각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10절)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 \_\_\_\_\_

건설하고 심게하였느니라 : \_\_\_\_\_



### 적용과 나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루실 일들은 당신의 민족을 향한 심판과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심판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목적은 진정한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픔의 시간을 지나 회복의 시기를 만났던 경험이 있나요? 함께 나눠주세요.

### 말씀 다지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여 실패 가운데 허덕이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과정에 서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부르심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편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 말씀으로 기도하기

1.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2.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내일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7월 12일  
공과

## 실로에서 행한 미정복지 분배

🎵 하나님 찬양하기

-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 마음 열기

한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 말씀 열기

본문 읽기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 배경 이해하기

여호수아 18장은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가 차질을 빚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18:1-10절의 본 단락에는 실로 회막건립에 관한 진술 후 곧바로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나머지 일곱 지파에 대한 여호수아의 책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일곱 지파들이 기업 분배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아마도 각 지파별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정복 전쟁에 확신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전군대가 힘을 합쳐 싸웠으나, 이제부터는 제비뽑아 할당받은 땅을 향해 지파별로 떠나 독자적으로 정착해야 했기에 그러한 독자적 과업의 수행에 대한 확신 부족이 남은 일곱 지파를 머뭇거리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일곱 지파가 기업 분배에 소극적인 것은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기업의 언약에 관한 그들의 신앙이 약화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독자적 정착 과업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도, 기업 분배의 과정에서 인간적 갈등이 개입되는 것도, 결국 가나안 정복 정착의 과정을 야훼의 언약 성취의 측면에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말씀 나누기

### 관찰과 묵상

1. 약속의 땅을 받기 전 마음이 느슨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려하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느슨해진 것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수18:1-7)



**적용과 나눔** 2021년 영국 ‘건강심리학저널’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습관이 형성되기까지의 걸리는 시간의 평균값은 59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사소한 행동이 59일이라는 시간을 통해 반복된다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든 그렇지 않은 습관이든 우리의 열심이 만들어 냅니다. 우리의 사소한 습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게 하지는 않은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좋은 습관도 찾아서 만들어 봅시다.

### 관찰과 묵상

1.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늘 내가 결단하고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수18:8-10)
2.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받기 위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오늘부터 어떻게 이겨 낼 수 있을지를 나눠봅시다. (수18:8-10)



**적용과 나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기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과 환경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쓰다 보면 잊혀지기가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잘 살피고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 말씀 다지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내는 깨끗하고 성결한 그릇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죄와 부정적인 생각과 같은 누룩은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망설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우선이 되지 않고 실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선 되도록 살피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 말씀으로

### 기도하기

1. 하나님에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기도합니다.
2.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월 19일  
공과

## 복음을 전할 때

🎵 하나님 찬양하기

-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 505장 온 세상 위하여

###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 말씀 열기

본문읽기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60절을 함께 읽습니다.

### 배경 이해하기

일곱 집사가 세워진 후 초대교회는 더욱 왕성하여졌습니다. 그 중 집사 스테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증인들을 불러 모아 스테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하여 공회에서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스테반은 공회가운데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으며,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셨으며, 마침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여전히 목이 곧으며 성령을 거슬러 행하는 것을 스테반은 질타합니다.

### 말씀 나누기

#### 관찰과 묵상

1. 스테반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행7:51-54)

💬 **적용과 나눔** 진리가 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을 듣고도 그 진리를 부정하며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전도자를 향하여 핍박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나누어봅시다.

### 관찰과 묵상

1. 스테반은 복음의 진리된 말씀을 전하며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향하여 기도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행 7:59-60)

 **적용과 나눔** 우리가 전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목을 곧게 하고 귀를 닫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되기도 합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나누어봅시다.

### 말씀 다지기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이 깨어지며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테반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전도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 말씀으로

### 기도하기

1. 나를 전도자로 복음을 위해 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2.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7월 26일  
공과

## 하나님의 자녀

🎵 하나님 찬양하기

-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 말씀 열기

본문읽기 사사기 10장 6절부터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 배경 이해하기

사사기 10장의 첫 부분은 두 사사 돌라와 야일의 활동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은 조용히 봉사하며 신실한 삶을 살지만, 이스라엘은 방심하여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신들’과 종교 제도는 도덕적 제약을 덜 가하므로 이스라엘이 볼 때 꽤 매력적이었기에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영적 침체가 정치적 탄압으로 이어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암몬 족속에 의한 탄압이 시작되었으며, 사사 입다의 수행이 이어지는 서막이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 말씀 나누기

#### 관찰과 묵상

1.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행한 악한 행위는 무엇이며, 이로 인한 야훼의 진노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삿 10:6)



**적용과 나눔** 사사기의 사이클 전체에 걸쳐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와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실패로 간주하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비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후회와 진정한 회개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의 수렁 속에서 텅굴기를 멈추고 그들 뒤에서 저지르던 악행을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백성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 관찰과 묵상

1.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야훼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삿 10:13-14)

2. 야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마음에 근심하게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삿 10:15-16)

 **적용과 나눔**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이스라엘이 후회만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우상을 저버리고 야훼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돼지우리에 머물러 뒹굴고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자격이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행한 죄악들에 대하여 진정한 회개 없이 후회만 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말씀 다지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우리를 향해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로 위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것을 통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함을 기억하시고, 후회가 아닌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말씀으로 기도하기

1.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면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죄에서 돌이켜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하도록 합니다.
2.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후회하는 것이 아닌, 완전한 돌이킴임을 알고 행함이 따르는 회개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 아펜젤러 선교사(1) (Henry G.Appenzeller)(1858~1902)

(한국 체류 1885~1902)(한국 이름 : 아편설라)

### 《은둔의 나라 조선》이란 책을 읽고 조선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



프랭클린 마셜대학 졸업사진

헨리 아펜젤러는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에서 1858년 2월 6일 스위스계 아버지와 독일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1882년 펜실베이니아의 프랭클린 앤 마셜 칼리지를 졸업하고, 감리교 신학교인 뉴저지의 드루신학교에서 공부했다.

이후 그리피스(William E. Griffis)가 1882년에 쓴 《은둔의 나라 조선》(Corea : The Hermit Nation)을 읽고 조선 선교사로 나갈 결심을 했다. 아펜젤러는 1883년 10월 코네티컷주 하트퍼드신학교에서 열린 신학생선교연합회에 학생 대표로 참가해 호레이스 언더우드를 만났다. 조선 선교가 확정될 무렵인 1884년 12월 랭커스터 제일감리교회에서 그는 엘라 닛지와 결혼식을 치렀다. 결혼과 동시에 미감리교 선교위원회에서 조선 선교사로 임명되었다.

### 언더우드와 함께 1885년 4월 5일 부활 주일에 인천에 도착

미국 동부에서 지구 반대편을 찾아 나선 아펜젤러의 조선행은 머나먼 고난의 길이었다. 미국 동부에서 서부를 횡단하는데 한 달이상 걸리는 긴 여정이었다. 그는 1885년 2월 3일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여 4월 2일 부산을 거쳐 미국 북장로교 소속 언더우드와 함께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인천 제물포를 통해 조선 땅을 밟았다. 첫 소감을 이렇게 남겼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왔

습니다. 부활절에 죽음의 장벽들을 산산이 부순 주님, 이 백성들을 속박하는 굴레들을 깨뜨리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빛과 자유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펜젤러 부부는 조선의 불안정한 사정 때문에 잠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들이 도착하기 4개월 전 조선에 갑신정변이 일어나 정국이 불안한 데다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임신한 부인까지 데리고 온 상황이었다. 미국공사관은 아펜젤러 부부가 낯선 땅에서 선교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해 서울 입성을 거절했다. 반면 총각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아무런 제약 없이 서울로 갈 수 있었다. 일본에 잠시 머무르던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는 그해 6월 스크랜턴 박사 가족과 함께 다시 인천으로 돌아와 7월 서울에 들어왔다.

### 배재학당 설립, 교육 사업에 헌신

아펜젤러 선교사는 조선에 와서 교육사업에 매진했다. 1885년 8월 2명의 학생으로 교육사업을 시작했으며, 1년 뒤 한국 최초의 근대학교를 개교한다. 1887년 고종은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는 집’이라는 뜻을 지닌 배재학당(培材學堂)이라는 교명을 하사했다. 이 학교의 교훈은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 20:26~28)는 말씀이었다. 아펜젤러는 또한 자조(自助)라는 교육 이념을 강조하고, 교육을 통해 사회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인간을 양육하고자 했다. 그의 교육 이념은 기독교 정신과 결부 되어 ‘욕위대자 당위인역(欲爲大者 當爲人役)(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정동교회 앞에 세워진 홍상과 기념비

마땅히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배재학당의 당훈(堂訓), 즉 학교 교훈으로 승화되었다. 이를 통해 아펜젤러가 배재학당을 통해 학생을 단순한 기능인으로 양육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사역자로 훈련해 지방의 전임 교역자뿐만 아니라 스스로 조선을 구할 수 있는 진정한 일꾼을 만들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배재학당은 기독교 사상에 입각한 근대화 교육으로 한국 근대기 개화 민족운동의 산실이 된다. 민족수난기를 거치면서 이승만, 주시경, 김소월 등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했다.

### 배재학당에 신학반을 편성 운영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8년 학생 중 지원자를 받아 신학반을 편성해 가르쳤다. 1890년까지는 신학부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본격적인 신학 교육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이것이 1893년 배재대학 신학부로 이어져 한국 감리교회 공인 신학교가 되었고, 이를 통해 배출된 지도자들은 아펜젤러가 기대한 대로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신앙 지도자가 되었다.

### 1887년 ‘벤엘’ 신앙공동체인 정동감리교회 시작



정동교회(사적 256호)

한편, 1887년에는 ‘벤엘’ 신앙공동체인 정동감리교회가 시작되었다. 아펜젤러는 정동에 작은 한옥 한 채를 사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벤엘’이라 부르고 10월 9일 첫 공중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정동감리교회의 첫 예배인 동시에 한국 감리교회의 첫

열매가 됐다. 정동감리교회는 새문안교회와 함께 한국 개신교회의 어머니 교회라 할 수 있다.

2주 뒤에는 최씨, 장씨, 강씨, 한씨 등과 스크랜튼 선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감격적인 성찬식을 베풀었다.

**“이렇게 생명의 떡을 이 백성에게 떼어주다니 그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 떡을 먹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찬식을 집례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드린 기도이다. 이후 뵤엘 예배당은 현재 정동감리교회 자리로 옮겨 115평의 고딕 건물로 새롭게 지어져 당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배재학당과 정동교회는 감리교 청년 운동인 엽윗 청년회 운동을 전개하는 등 한국의 개화와 독립운동의 산실이 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은상철 장로)



 **기도노트** 예배와 성경읽기를 하며 주신 기도제목들을 적어보세요

A large, empty white rectangular box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writing prayer requests.